Weekly
FX Economis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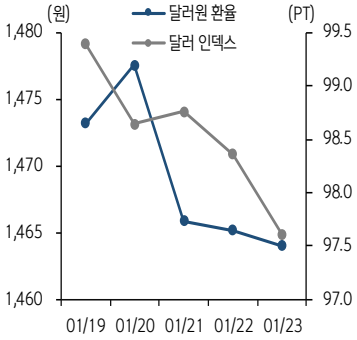
2026-01-26

우당탕 미국, 발끈한 유럽, 당황한 일본

FX Talk & Insight : 금주 1,445~1,470원 전망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으로 높아졌던 유럽과의 긴장감은 관세 인상 철회로 또 한번 타코 플레이 전개. 환율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 다시 확인한 가운데 국내 증시 호조 등으로 1,460원대 반락. 트럼프 리스크 해소는 미지수이나 미일 공조 개입 가능성 등으로 하락 출발할 가능성 높아. FOMC에서 금리 동결 예상하나 트럼프에 충성하는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가능성. 트럼프에 불리한 상호관세의 대법원 판결 가능성도 배제 못하나 반도체·의약품 인상으로 우회 소지

외환시장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445	1470
달러엔	154.5	157.0
유로달러	1.172	1.192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한 각자도생 시대가 맞는 것 같다. 탐욕스럽고 무례한 트럼프에 불쾌해진 유럽 그리고 다소 무모한 일본 정부의 도전이 뒤섞이며 시계(視界)를 흐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글로벌 불확실성이 엇갈리다 보니 달러-원 환율도 다시 1,480원을 타진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행히도 그린란드를 지렛대 삼아 유럽을 겨냥하던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한발짝 물러서는 조짐을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환율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자 1,460원대로 물러나 숨을 고르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이벤트들은 환율을 비롯한 국내외 금융시장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남기고 있을 것이다.

첫째, 트럼프의 행동을 타코라고 비웃을 수 있지만 애당초 고관세 위협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무기에 불과한 만큼 미국의 실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강한 상대와 약한 상대를 골라 파괴력이 다른 무기를 쓰고 있어 중국이나 유럽에는 강대강 전략을 고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 위협을 철회하는 대가로 그린란드에 대한 경제적인 접근권 허용과 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시장과 국민들은 럭비공 같고 모양 빠지는 타코 전략에 피로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트럼프 지지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 서반구를 장악하려는 트럼프가 불편하지만 하나로 뭉쳐 싸울 정도로 단단해진 유럽도 아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지난해 4월의 셀 아메리카를 떠올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그때와 달리 유로화가 그다지 힘을 얻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지난해 2월말만 해도 달러당 1.00유로를 맴돌았으나 트럼프 관세 우려가 커지자 셀 아메리카가 전개되며 유로화 환율이 4월에는 1.15선까지 빠르게 치솟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트럼프 리스크와 미국 주식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박스권에 머물렀을 뿐이다. AI 경쟁에 뒤치고 재정이 불안한 유럽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오랫동안 상식으로 받아들인 안전 자산으로서 엔화 지위는 확실하게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끈을 놓지 않고 있는 BOJ와 각종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오히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제아무리 외화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갈등과 중의원 해산 등으로 다카이치 총리 위임 이후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만만치 않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 우선 주의와 군비 확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의 악화가 불가피하다. 물론 일각에서 미일 공조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엔화 환율이 물러설 것으로 여겨지나 재정 부실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하나의 선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통화, 재정, 무역 등 다양한 이벤트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이다. 금번 FOMC에서 연준의 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 이를 핑계로 트럼프는 자신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계속 흔들 것이다. 또한 가시권에 들어 오는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설사 트럼프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의약품 및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기류를 바꿀 것이다.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Weekly
FX Economis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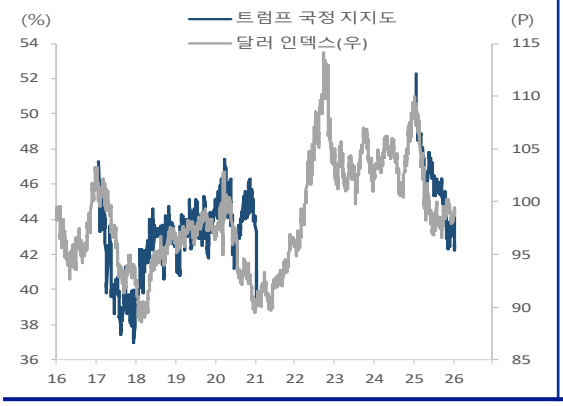
우당탕 미국, 발끈한 유럽, 당황한 일본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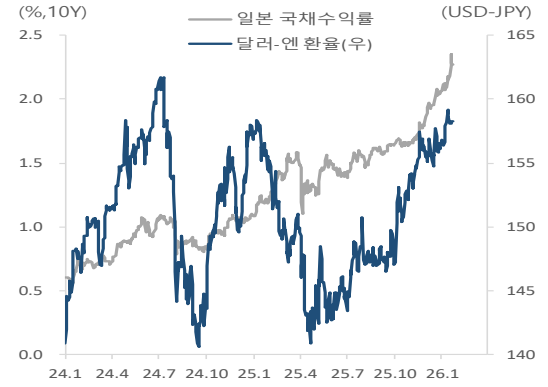
그린란드 침공과 유럽에 대한 관세 인상 등에서 트럼프가 한발 물러서며 소강 국면. 그러나 자국 우선주의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상시화

중국과 갈등 및 의회 해산 등으로 불확실성 커지며 일본 금리 요동. 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은 제한적이나 궁극적으로 재정에 대한 신뢰 저하

유럽과도 갈등 벌이는 등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일본 정치와 재정에 대한 신뢰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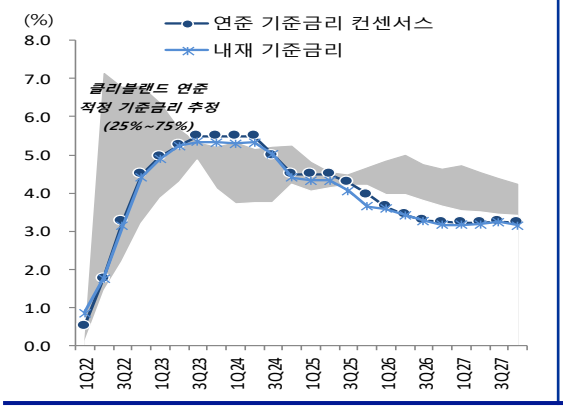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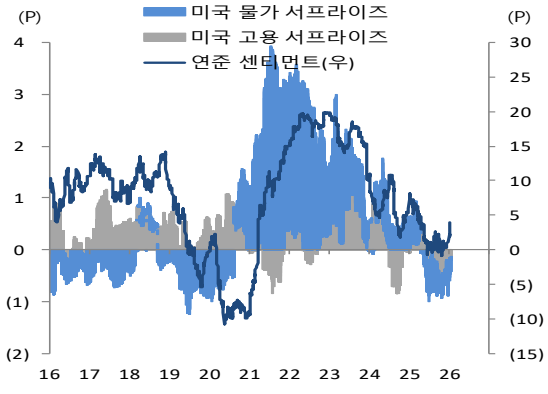
기술혁신을 근간으로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 이어가는 미국. 고용이 금리인하 유인 제공할 수 있지만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은 연준과 괴리

연준의 독립성을 자극하는 트럼프의 행보로 연준내 반발 기류 형성될 가능성. 연준 인사들의 발언 신중해지고 있어 1월 FOMC 금리 동결 예상

금리인하 유인 떨어지는 미국 경제 환경



연준 독립성 수호를 자극하는 트럼프 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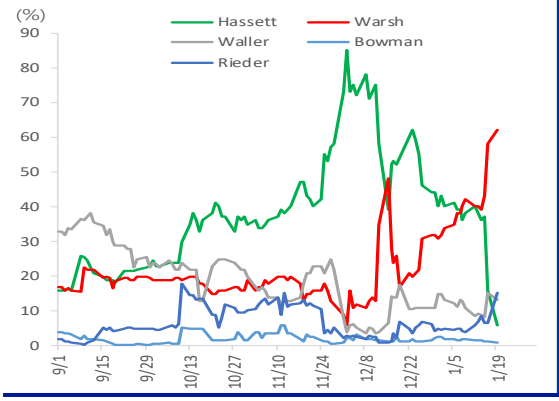


자료 : FRB,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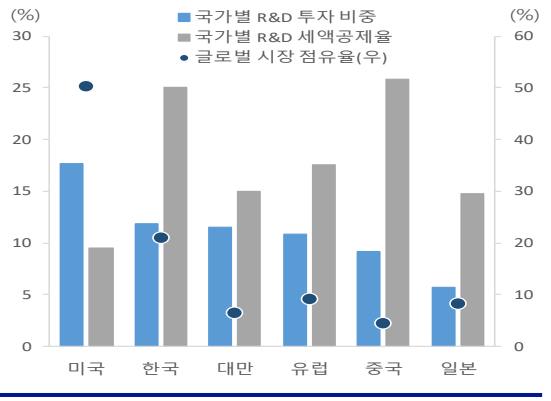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 조만간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예고. 시장은 기존 해싯에서 워시를 유력 후보로 예상. 상대적으로 매파적일 뿐 트럼프 충성도 충족

상호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능성. 트럼프에 불리한 상황으로 여겨지나 이미 무역 협상 체결. 반도체 등으로 관세 우회 가능성 적지 않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워시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



반도체 관세 부과로 주도권 유지하려는 미국



자료 : SIA,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텨

Weekly
FX Economist View

우당탕 미국, 발끈한 유럽, 당황한 일본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1-26-2026 22:30	US	내구재 주문	Nov P	3.00%	-2.20%	91
1-27-2026 10:30	CH	공업기업이익 연초대비 전년비	Dec	--	0.10%	51
1-28-2026 0:00	US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Jan	90.1	89.1	92
1-28-2026 9:30	AU	CPI 전년비	Dec	--	3.40%	76
1-28-2026 23:45	CA	캐나다 은행 금리결정	28-Jan	2.25%	2.25%	97
1-29-2026 4:00	US	FOMC 금리 결정 (상한)	28-Jan	3.75%	3.75%	98
1-29-2026 18:00	EC	M3 통화공급 전년비	Dec	--	3.00%	79
1-29-2026 19:00	EC	소비자기대지수	Jan F	--	--	67
1-29-2026 22:30	US	무역수지	Nov	-$44.6b	-$29.4b	85
1-30-2026 8:00	SK	광공업생산 YoY	Dec	--	-1.40%	82
1-30-2026 8:30	JN	도쿄 CPI (전년대비)	Jan	1.80%	2.00%	73
1-30-2026 8:30	JN	도쿄 CPI (신선식품제외/전년비)	Jan	2.20%	2.30%	91
1-30-2026 8:30	JN	실업률	Dec	2.60%	2.60%	97
1-30-2026 8:50	JN	소매판매 YoY	Dec	0.60%	1.00%	72
1-30-2026 8:50	JN	광공업생산 YoY	Dec P	1.90%	-2.20%	70
1-30-2026 19:00	EC	GDP SA (전기대비)	4Q A	--	0.30%	90
1-30-2026 19:00	EC	실업률	Dec	--	6.30%	69
1-30-2026 22:30	US	PPI 최종수요 MoM	Dec	0.20%	0.20%	93
1-30-2026 22:30	US	PPI (식품 및 에너지 제외) 전월비	Dec	0.20%	0.00%	70
1-31-2026 10:30	CH	제조업 PMI	Jan	--	50.1	94
1-31-2026 10:30	CH	비제조업 PMI	Jan	--	50.2	76
2-01-2026 9:00	SK	수출 YoY	Jan	--	13.40%	92
2-01-2026 9:00	SK	무역수지	Jan	--	$12179m	63
2-01-2026 9:00	SK	수입 YoY	Jan	--	4.60%	71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465.0	210.6
고가	1,469.9	211.2
저가	1,462.0	210.6
종가[1)]	1,465.8	210.8
전일비	-4.1	-0.4
평균환율	1,467.2	210.9
NDF(1M)	1,444.6	
거래량	162(억불)	196(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464.00	-1.85
JPY/KRW	935.84	10.49
EUR/KRW	1,722.45	6.77
GBP/KRW	1,996.44	18.58
AUD/KRW	1,007.33	5.31
CAD/KRW	1,068.07	5.36
USD/JPY	155.70	-2.71
EUR/USD	1.1828	0.0073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2)]	전일비
1Y	2.844	0.042	2.375	0.02
2Y	3.050	0.034	2.605	-0.01
3Y	3.197	0.036	2.775	0.00
4Y	3.283	0.033	2.830	0.00
5Y	3.354	0.037	2.900	0.01
7Y	3.436	0.034	2.940	0.01
10Y	3.496	0.036	2.915	0.01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69	+0.01
통안 1년	2.58	+0.02
통안 2년	2.95	+0.03
국고채 3년	3.13	+0.03
국고채 5년	3.41	+0.02
국고채 10년	3.58	+0.03
국고채선물(3년)	104.98	+0.06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165	0.00	2.29%
3M	-480	0.00	2.33%
6M	-960	20.00	2.34%
1Y	-1,690	10.00	2.38%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3)]	전일비
1Y	3.51	-0.014	3.52	0.000
2Y	3.59	0.009	3.43	0.007
3Y	3.66	0.006	3.46	0.009
5Y	3.82	0.000	3.57	0.002
10Y	4.23	-0.018	3.87	-0.010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4,990.07	+37.54	+0.76%
미국 DOW	49,098.71	-285.30	-0.58%
중국 상해종합	4,136.16	+13.59	+0.33%
일본 NIKKEI 225	53,846.87	+157.98	+0.29%
영국 FTSE 100	10,143.44	-6.61	-0.07%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61.07	+1.71
금 (선물)	4,979.70	+66.30
3M TERM SOFR	3.67	+0.00
3M EURIBOR	2.04	+0.01
KOR 5Y CDS	20.92	+0.09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